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인 9일(현지시간) 자유와 통일을 가져온 역사적인 날을 자축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이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인. 장벽을 형상화한 하얀 빛의 풍선을 하늘로 멀리 날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APEC 정상회의의 베이징서 개막

中 시진핑-日 아베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동중국해 충돌 예방 위한 논의 이뤄질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참가국 정상들의 양자회담 일정 등을 통해 사실상 막을 올렸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낮 11시50분(현지시간)께부터 약 30분간 대화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가 취임 후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반 만에 성사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간의 이번 만남에 대해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회견(會見·회동)’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일은 서로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과 국

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정부는 대일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한다”면서 “중일간 4개 ‘정치문건’의 기초 위에서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따라 중일관계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중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비곡직(是非曲直·누구의 잘못인지)은 명확하다”고 말해 양국관계의 갈등 원인을 일본 측이 제 공했다는 입장을 사실상 명확히 했다.

그는 양국이 양국 관계 처리 및 개선에 관한 4대 원칙에 관해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이 합의사항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 문제는 13억 중국인민의 감정과 관련이 큰 문제이며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의 대국과도 관계된 문제”라면서 “일본이 양국간 합의한 정치문건과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 역대 정부가

밝힌 약속을 준수할 때만이 비로소 아시아 주변국과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중일관계 구축은 시대의 진보로 조류에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계속 걷고 ▲신중한 군사안보 정책을 채택하고 ▲이웃국가와의 상호신뢰를 증진하는데 유리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평화 발전은 일본과 세계에 중요한 기회”라면서 “일본은 양측이 달성한 4개항의 공동인식을 실현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일중간 전략적 호혜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결심이 돼 있다”면서 “일본정부는 역대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에 관해 밝힌 ‘인식’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라고 말한 뒤 중국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상간의 이번 만남에서 현안인 센카쿠 영도 영유권 문제와 아베 총

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일중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에 다시 선, 관계 개선의 제1보(步)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담 내용에 언급,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사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 6~7일 아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양 국무위원과 아치 국장은 센카쿠 영도 문제와 역사인식 등에 대한 4개 항의 합의를 함으로써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국 국기와 테이블을 놓고 정식으로 진행됐던 것보다는 소파에 앉아 점진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식 정상회담으로 보기에에는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5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北 김정은에 친서 전달

‘미국인 2명 석방’ 관련...北 “진심 어린 사과 받았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클레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친서를 전달했다고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클레퍼 국장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동행 취재하는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일행이 탄 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이 이날 새벽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 공군기지를 이륙하기 앞서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북한 당국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클레퍼 국장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얻어내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방북했으며 ‘외교적 돌파구’(diplomatic opening) 마련을 위한 어떤 다른 목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이번 임무를 위해 클레퍼 국장을 선택한 것도 한반도 문제에 배경지식이 있는 데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외교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방북은 외교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클레퍼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에 보내는 ‘짧고 명료한’ 내용의 서한을 가져갔으며 편지에 클레퍼 국장이 억류 미국인들의 귀환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personal envoy)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몇 주 전 미국 측에 억류자들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고위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했다”며 “클레퍼 국장은 거의 하루를 북한에 머물렀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북한 고위 관리들과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클레퍼 국장이 북한 당국에 추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다른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인 석방 이외의 다른 현안을 꺼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이 미국인 석방을 위한 ‘유일한 기회’(unique opportunity)였다고 주장했다.

관련 CNN은 북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美 공습으로 IS 지도자 부상 당해”

이라크 국방부 등 밝혀

이라크 정부는 9일(현지시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군 주도 공습으로 다쳤다고 밝혔다.

이라크 국방부와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알바그다디가 부상했다고 확인했으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라크 국영TV와 이라크 독립통신사 NINA도 소식통을 인용, 알바그다디가

다쳤다고 전했다. 내무부의 정보관리는 AP통신에 IS 내부에 있는 정보원이 알바그다디가 전날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카미스에서 IS 대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공습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현지 취재원을 인용, 국제동맹군이 이라크 모술 부근에서 IS 고위급 인사들이 탄 차량을 폭격해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 투표 강행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9일(현지시간) 카탈루냐주 전역에서 분리독립 의견을 묻는 비공식 주민투표가 강행됐다.

AFP통신은 조안나 오르테가 카탈루냐주 부(副)주지사의 말을 인용, 마감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10일 오전 2시)까지 197만7531명이 투표했다고 전했다.

오르테가 부주지사는 공식적인 선거인 명부가 없어 투표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16세 이상의

주민과 거주 외국인 등 총 유권자가 540만 명이라고 밝혔다.

투표장을 찾은 한 16세 학생은 AFP통신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요구해온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면서 “비록 공식 투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각급 학교와 마을회관 등에는 전날 투표함이 설치됐으며 자원봉사자 4만1000여 명이 투표 진행을 맡았다. /연합뉴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람(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호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